

현안과 과제

글로벌스캔&현대경제연구원 공동조사 결과
- 한국, 시장경제에 대한 선호도 낮다

1. 시장경제체제 글로벌 여론 조사

-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인식조사를 시행
 -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으며, 국내에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확대
 - 국내적으로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소득 양극화 등이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
 - 이에 따라 세계적 여론조사 기관인 글로벌스캔(Globescan)과 현대경제연구원이 2012년 공동으로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글로벌 여론 조사를 시행
 - 글로벌스캔은 2002년부터 시장경제에 대한 글로벌 여론조사를 시행해왔으며, 매년 세계 20여개국의 파트너와 공동 기획하여 발표
 - 현대경제연구원은 2012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한국측 파트너로서 글로벌 여론조사 기획에 참여¹⁾
 -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국내의 일반 시민들의 신뢰도를 조사함으로써 국가별 비교 및 시기별 인식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자 함
 -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봄
 - 세계 20여개국 국민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과 우리 국민들의 선호도를 비교해 봄으로써 시장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의 현주소를 파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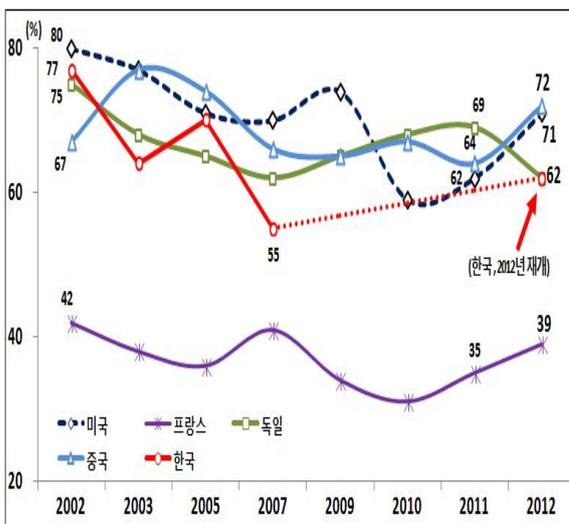
1) 글로벌스캔은 매년 “Globescan Radar”라는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의 일환으로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2002년부터 시행. 여러 이슈 중 시장경제체제 선호도와 관련한 한국측 설문조사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되었으나, 이후 중단되었으며 현대경제연구원에서 2012년 다시 한국측 파트너로 설문 조사를 재개하였음.

2. 글로벌 선호도 조사 결과

○ 금융위기 이후 악화되었던 시장경제에 대한 선호도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,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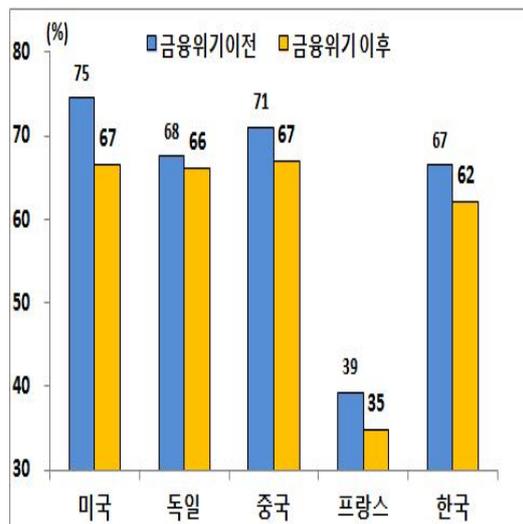
- (선호도 추이) 금융위기 이후 악화되었던 시장경제 선호도 점차 회복세
 - 금융위기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가 크게 하락했으나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서 시장경제에 대한 선호도는 완만하게 상승
 - 미국의 경우 작년의 62%에서 71%로 9%p 상승했고, 중국도 64%에서 72%로 8%p 상승. 그러나 독일의 경우 유럽재정위기의 여파로 2011년 69%에서 2012년 62%로 7%p 선호도가 오히려 하락
 - 한국의 경우 2007년 55%를 기록한 이후 2012년 조사에서 62%로 개선되었으나,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유지)
- (금융위기 전후 비교) 시장경제에 대한 선호도는 아직 금융위기 이전보다는 낮은 수준
 - 미국은 2002~2007년 평균 75%에서 2010~2012년 평균 67%로 8%p 하락. 가장 낮은 프랑스도 같은 기간 39%에서 35%로 4%p 하락
 - 한국도 금융위기 이전(2002~2007)에 시장경제에 대한 선호도는 67%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62%로 5%p 낮은 수준을 나타냄

< 주요국의 시장경제 선호도 추이 >



자료 : Globescan.
주 : 2004, 2006, 2008년은 자료없음.

< 금융위기전후 시장경제선호도 비교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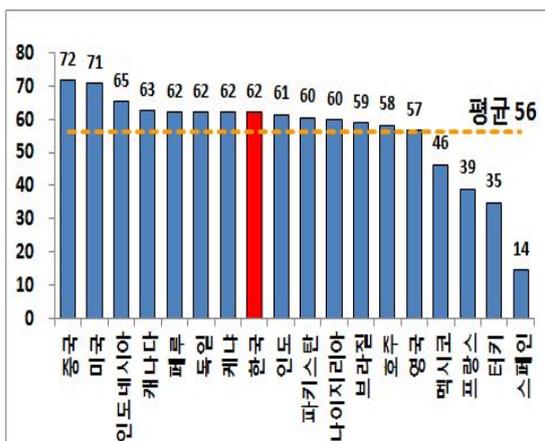
자료 : Globescan.

2) 한국의 경우 2007년 이후 설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, 2012년 현대경제연구원의 참여로 다시 시행되었음.

○ 2012년 유럽재정위기 등의 영향으로 신흥국의 시장경제 선호도가 선진국보다 높았고, 한국의 경우 주요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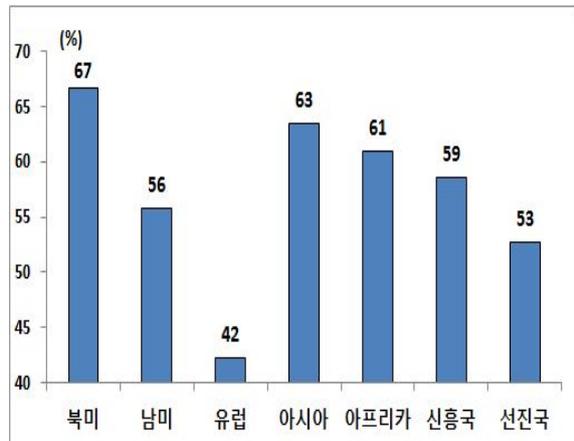
- (지역별 비교) 신흥국의 시장경제체제 선호도가 선진국보다 높음
 - 북미 지역의 시장경제선호도는 67%로 가장 높았으며, 아시아 63%, 아프리카 61%, 남미 56%, 유럽이 42%의 순서로 나타남
 - 신흥국가의 시장경제에 대한 선호도는 59%로 선진국의 53%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 - 이는 2012년 유럽재정위기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선진국에서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
- (국가별 비교) 중국, 시장경제체제 선호도 1위
 - 중국의 시장경제에 대한 선호도는 72%로 18개 조사 참여국가들 중 가장 높았고, 미국 71%, 인도네시아 65%, 캐나다 63% 순으로 나타남
 - 반면 터키, 스페인 등은 자유시장 선호도가 35%, 14%로 가장 낮게 나타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져 있음
 - 시장경제의 본고장인 미국이나 다른 서방 국가들보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인들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특이
- (한국 현황) 시장경제체제 선호도는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
 - 2012년 한국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선호도는 62%로 18개국중 8위에 해당하며 전체 평균 56%보다 높은 수준에 해당
 - 한국의 시장경제체제 선호도는 미국이나 독일, 중국에 비해서는 낮고, 영국, 호주, 프랑스 등에 비해서는 높은 편에 속함

< 2012년 국가별 시장경제 선호도 >



자료 : Globescan.

< 2012년 지역별 시장경제 선호도 >



자료 : Globescan.

3. 시사점

- 한국의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, 정부는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국민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은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등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해야 함
 - 시장경제체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금융위기와 세계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경쟁을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신뢰도가 여전히 낮은 수준
 - 이는 시장경제의 근간이 되는 경쟁시스템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와 확신이 크게 손상되어 있음을 의미
 -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낮으면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의욕 상실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, 사회적 불안이 고조될 우려
 - 정부는 시장경제체제의 활력을 높이고 시장경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쌓기 위해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함
 - 특히 자유시장경제의 가치에 대한 청소년 교육 및 홍보 활성화와 함께 바람직한 자본주의 기업가 정신의 함양을 위한 청년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
 - 기업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 스스로 사회적 기여를 강화함으로써 반기업정서를 해소하고 건전하고 성숙한 시장경제체제를 선도
 - 고용과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기업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
 - 따라서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여를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반기업정서를 줄이고 성숙한 시장경제문화를 선도해야 함 **HRI**

경제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최성근 (csk01@hri.co.kr, 2072-6223)

<참고>

○ 조사 개요

- 글로벌스캔과 공동기획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으며, 한국측 설문조사는 현대경제연구원 부설 코스모리서치 센터에서 수행하였음

○ 조사 방법 및 일정

- 조사 기간 : 2012년 8월 13일~17일
- 조사 방법 : 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전화 조사와 면접조사
- 전체 표본 : 13,778명 (국가별 500명 내외, 한국은 703명)
- 표본 오차 : 95%의 신뢰수준에서 $\pm 3.70\%$ (한국 기준)
- 조사 국가 : 미국, 영국, 독일, 프랑스, 중국, 인도, 브라질, 캐나다, 호주, 스페인, 인도네시아, 터키, 페루, 멕시코, 파키스탄, 케냐, 나이지리아, 한국 (총 18개국)
- 설문 문항 : “자유시장경제체제가 세계의 미래에 기반이 될 가장 좋은 체제라고 생각하는가?” (The free market system and free market economy is the best system on which to base the future of the world?)